

# “치료 어디서 받으라고”...조기퇴원 통보 환자 가족들 분통

### 전공의 사직 행렬 전남대·조선대병원 환자들 퇴원수속 뒤송송 협착증 환자 “통증 못참아 병원 찾았는데 수술 어렵다 통보” 불안 간병인들 속속 병원 떠나...병원측 비상회의 진료공백 대책 논의

“당장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19일 오후 전남대병원 로비에서 광주일보 취재진을 만난 조장순(여·76)씨는 통증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에 반발하는 광주·전남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며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척추협착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조차 못해 휠체어를 탄 조씨는 통증을 참다못해 이날 병원을 찾았지만,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조씨는 “걷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잘만큼 통증이 심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제때 수술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일단 예약은 했지만 병원에서 수술은 빨라야 다음달이고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고 해 통증을 어떻게 참아야 할지 걱정이다”고 울먹였다.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조선대병원을 알아보던 조씨의 보호자가 조씨에게 “두 병원 모두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하자 조씨는 “아픈 몸으로 어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결국 눈물을 떨었다.

이날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 뿐 아니라 의사들 모두 뒤송송한 분위기였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 된다는 소식에 미리 병원을 찾은 환자부터 조기 퇴원권유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퇴원수속을 밟고 있는 환자들까지 섞여 병원 로비는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두 병원에서는 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구급차에 탑승하는 환자들로 분주했으며 짐을 싸고 퇴원수속을 밟는 환자도 쉽게 찾아볼수 있었다.

지난 11일 조선대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정무경(66)씨는 “병원으로부터 조기퇴원을 통보받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처음에는 수술 후 2주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오늘(19일) 갑자기 ‘내일 퇴원하라’고 의사가 이야기 했다”면서 “의사가 (수술 후) 몸이 호전돼 퇴원시키는지, 전공의 집단사직 때문인지 제대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입원실 분위기는 더 심판하고 뒤송송하다고 환자들은 전했다.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재활치료 중인 유모(76)씨는 “오늘따라 병원이 어수선했던 게 느껴진다”며 “함께 병실을 사용하는 다른 환자도 대형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간병인들도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다.

총 200명의 간병인이 소속돼 있는 광주지역 한 간병인 협회는 “의료 집단 반발 움직임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간병인 고용이 점차 줄어 매출이 평소 대비 80%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환자는 “이날 오전에만 6명의 간병인이 짐을 싸서 나갔다”고 말했다.

병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7시부터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가시화 된 1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 원무과 앞 대기 장소가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은 이날 오후 5시 비상회의를 열었다. 병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20일부터 전공의들이 근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단 병원측은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배치해

진료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전공의(레지던트·인턴)는 521명에 달한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전공의는 404명(전남대병원 213명, 조선대병원 142명, 기독병원 39명, 보훈병원 10명), 전남은 117명(화순전남대병원 86명

여수전남대병원 6명, 순천 성기물로 병원 13명, 국립나주병원 12명)이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광주·전남 전공의 72%(376명·전남대병원 224명, 조선대병원 108명, 기독병원 31명, 성기물로 병원 13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악용 일당 징역형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검증 절차가 허술해 범죄의 표적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들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지난 2022년 4월 온라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청년의 주거안

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이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임차인 모집책인 A씨는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노렸다. 금융기관이 임대·임차인의 전세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해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허위 임차인 B씨와 허위 임대인 C씨를 모집해 보증금 1억 2000만원(계약금 900만원, 잔금 1억11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원의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A씨는 친구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1억원 대출금 가운데 2000만원을 건네 준 뒤 “내가 받은 전세대출은 불법”이라면서 “처벌받지 않으려면 돌려줘야 한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일용직 동료 살해하고 숙소 불지른 40대 체포

“어린 놈이 건방지다” 횡침에 범행

1년여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를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목포경찰은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 연기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삼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 여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가 머물던 방에 흉기가 놓여 있어 살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밤 11시 10분께 목포시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건

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공사 현장에서 만나 전국을 돌며 같이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로, 이날 B씨는 몸을 씻기 위해 숙소를 들렀다가 A씨와 술자리를 하면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B씨가 말대꾸하고, 일도 어영부영 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은 30분만에 꺼져 외부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에어컨, 가재도구 등이 불타고 벽면이 그을려 소방당국 추산 78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회식 자리서 여직원 성추행 여수시 6급 공무원 전보 조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분리조치가 내려졌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팀장급 공무원 A

씨가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자리는 지난달 여수시 인사이동 후 자리를 옮기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는 A씨에게 회식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항의한 뒤 여수시 감사실에 신고했다.

여수시는 A씨를 B씨와 분리해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 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여수시는 A씨를 중징계하기로 하고 전남도에도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